



19일 도지사 주재로 제주도청에서 열린 방역협의회(왼쪽)와 제주시 한림읍 금악2교차로에 설치돼 가축단지 방문 차량을 대상으로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축 방역 초소.



이상국기자

“공수의사 활용 농장별 응급지도 강화”

민·관·산·학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긴급회의 기관단체별 역할 분담… 방역 사각지대 해소 주력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산·학이 머리를 맞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방역협의회를 1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개최했다.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농·축협, 생산자협회, 학계, 수의사회, 방역 및 검역 정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완벽 차단을 위해서는 초동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사각지대의 소독·검역 강화, 행정과 농가 및 관련 기관의 자발적

협조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박성규 제주특별자치도수의사회 부회장은 “파주 발생농장인 경우 농장주가 직접 부검을 진행한 뒤 신고를 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던 케이스”라며 “임상 증상이 나타나거나 폐사 동반 요인이 있을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를 빨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고 접수 후 방역단이 시료채취, 확진 등을 할 수 있도록 부검 시설, 인력, 장비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곽 부회장은 또 “소독약을 섞어쓰거나 방치하는 사례들도 있다”며 “행정과 농축협 등에서 보급하는 소독

약품에 대한 약품지도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했다.

이에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의 경우 농가 폐사 신고 시 바로 동물위생시험소가 1차 진단을 하고 있다”며 “의심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협조를 당부하고 농가에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증상에 대한 리플렛을 제작해 안내하겠다”고 답변했다.

원 지사는 “비상 상황인 만큼 제주도내 공수의사 등을 활용해 농장별로 응급 지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농가에 보급되고 있는 약품의 관리와 행동지침 등에 대해 농가에서는 정확하게 따르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지도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독 및 방

역강화도 거론됐다. 변대근 농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은 “농장주를 중심으로 외부활동 자체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독 강화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항만 검역 강화 ▷도외반출 금지 ▷축산관계자 및 양돈 근무자 모임 및 행사 금지 ▷농장입구 통제 및 소독 등도 논의됐다.

제주도는 이날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을 중심으로 기관단체별 역할을 분담하고 방역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아울러 앞으로도 도내 278개 양돈농가에 대해 농장 단위 차단 방역(입구 차단, 내외부 소독 등)을 강화하는 한편 도행정시 합동으로 현장 방역점검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 감사결과

예산 과다지출 등 업무소홀 심각

경고 등 28건 지적

한국중부발전(주) 제주발전본부가 업무 소홀로 발전연료를 외부로 누출한 것을 비롯해 예산 과다 지출, 관행적 업무 처리 등의 사례가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한국중부발전(주) 감사실은 지난 6월 제주발전본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최근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 13건(시정 1·개선 3·주의 2·기타 7), 재정상 조치 4건(변상 1·회수 2·기타 1), 신분상 조치 11건(경고 11) 등 총 28건을 지적했다.

우선 감사실은 LNG복합용 경유 하역작업 중 발전연료 저장용 탱크에서 경유가 외부로 누출된 사례를 확인했다.

또 2억원 미만의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할 때 지역제한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을 준수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감사에서 지적했다.

특히 외산 자재 구매를 요청할 때 행정소요일수 등을 고려해야 하지만 납기일을 특정하고 촉박하게 지정한 것은 물론, 특정 제조사 제품을 일부 포함시키으로써 입찰 희망자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강요할 소지를 제공했다.

B마를 태양광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대 용역 대상 면적을 잘못 적용해 설계금액이 과대하게 계약된 사실도 확인됐다. 변경계약을 할 때에도 과다 계상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을 계산해 올렸다.

이밖에도 LNG복합 공사용 동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의 모범사례 7건도 확인됐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검찰, 전기톱 상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

벌조책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일명 ‘제주 전기톱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전기톱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심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의 계획성이 없었던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제주 전기톱 사건’은 지난달 25

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에서 피해자 A(42)씨가 김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 마당에 위치한 산소에 대한 벌초에 나서면서 발생했다.

산소 주변에 나무가 썩어있는 문제로 해당 주택 여주인과 다툼이 벌어지자, 주택 세입자였던 김씨가 가세하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후 격분한 김씨는 창고에 있던 전기톱을 들고나와 A씨의 오른쪽 다리에 휘둘렀다. A씨는 다리 좌골 신경과 근육이 절단되는 등의 중상을 입어 전치 20주의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이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로 혐의를 바꿔 구속기소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방지 최선 다하라”

한농연제주 강력 촉구

(사)한국농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는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과 관련, 19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는 ASF의 제주 유입방지에 총력을 다하라”며 “특히 야생 멧돼지 관리 강화 및 불법 축산가공물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농연제주는 “ASF가 제주에서 발병할 경우 제주 양돈산업은 전멸할 수밖에 없어 제주도는 ASF 제주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백금탁기자

제주 주택시장 ‘매매’보단 ‘전·월세’

1~8월 매매량 전년비 22% ↓
전월세 5년 평균보다 55% ↑

제주지역의 주택 매매량은 감소한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늘며 대조적이다. 주택가격 상승과 함께 투자 가치에 따른 소비자의 부담이 적용되며 매매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8월 주택 매매거래량’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의 8월 중 주택 매매거래량은 615건으로 지난해 8월의 680건보다 65건(9.6%)이 줄었다. 또 한달 전인

7월 649건에 비해서도 34건(5.2%)이 적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됐던 5년 평균에 비하면 24.3%가 적은 수치다.

부동산시장의 침체 속에 올해 1~8월 도내 주택 매매거래량도 4971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2.4%, 5년 평균 대비 33.4% 각각 줄었다.

제주지역 전월세 거래량은 상승세다. 8월 중 900건이 거래되며 지난해 8월 거래량 964건에 견줘 64건(6.6%)이 적지만 5년 평균 대비 58.4%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 7월의 846건에 비해 54건(6.4%)이 늘었고, 올해 1~8월 전월세 누계도

7661건으로 지난해보다 2.3%, 5년 평균 대비 54.6% 각각 상승했다.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 6506건으로 1년 전 6만5945건에 비해 0.9% 증가했다. 5년 평균 8만 6230건 대비 22.9%, 전월 6만7349건보다 1.3% 각각 감소했다.

한편 이날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9월 3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의하면 9월 셋째주(9월 16일 기준) 제주지역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09%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0.00% 보합세를 보였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www.토종흑염소목장.com / www.blackgoat.1939.co.kr

흑염소 체험농장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흑염소 체험농장**과 힐링이 있는 곳!

흑염소 대공연
(매 시간마다)

SNS 태그
매월 추첨
50만원 상당
경품
(사은품증정)

▲ 흑염소 먹이물이 (시간마다 진행)

▲ 흑염소 놀이터 (흑염소는 본능적으로 높은곳에 올라가는것을 좋아함)
현재 3000두 이상 사육

제주 최대 편백 숲

피톤치드(자연항균물질)가 뿜어져 나오는 편백숲에서 산책하시면서 힐링과 건강도 챙기세요

▲ 편백숲길

오픈기념으로 편백수를 드립니다

토종 흑염소 요리 전문점

흑염소 마루

가마솥에서 진하게 우려낸 흑염소 진국을 드시고 온 가족이 면역력도 함께 키워보세요

메뉴

- 흑염소탕 / 전골
- 수육 / 육회
- 숯불구이 / 떡갈비

노린내 나지 않는 염소고기 식당 납품 가능

흑염소 마루 / 예약문의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663번길 1-1

T. 064.805.5099

T. 064.764.6678

흑염소 진액 주문받습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 14번지